

학교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등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복합화 사업추진시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고 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분리되어서는 시설사업 예산 분담과 관리운영비 분담, 이용방법, 리스크 분담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한다.

-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과 중심이라는 것이다. 목표 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협상절차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주무관청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시 민간 사업자간 경쟁을 벌여 가장 좋은 조건을 내건 업체를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조건을 내건 업체란 과거처럼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이른바 VFM (예산지출의 효율적 활용)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보장하는 등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선도 국가의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민간투자 교육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

### What Educational Facilities want with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임수영\*

Im, Su-Young

#### 1. BTL의 도입 배경

<국가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누구나가 몇 번이고 들어봤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명제이다. 어느 누구도 당연하게 답은 교육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누구나가 동의하는 답을 찾기는 더욱 힘들다.

그럼 어떤 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까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체계, 좋은 교재, 좋은 입시제도, 좋은 시설, 좋은 학생 등등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외에도 조금 떨어진 사회의 제 환경들이 수도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모두가 더 나은 장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불행이도 현대 사회에서 많은 것이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교육 역시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노력하면 더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논리의 어두운 부분 역시 우리와 우리의 교육과 함께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자본주의의 위기의식을 갖고 자본의 무서움을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된 것은 IMF 경제 위기이다. 그 이전에는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아무 문제도 없고, 나이가 들면 월급이 올라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평범한 노후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가 주는 밝은 면에 안주하고 살아왔다.

대기업이 도산하고, 감원이 일어나고, 모든 사회가 감원의 열풍 속에서 그 여파는 국영기업 공무원에게까지 찾아왔다. 국가가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가정의 붕괴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는지 대한민국의 국민 한명 한명에게 뼈에 사무치게 남겨졌다. 많은 잠재력을 지녔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약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이 있다.

교육이라는 미래를 위한 사업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지, 교육을 자본이라는 잣대만으로 측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 2. 민간투자 사업의 도입과 현 문제점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발상은 영국의 경제위기에 시작됐다. 일본도 자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장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인 1999년에 도입하였고, 이 중에는 국가사업 31건, 지방자치단체 171건, 조합 6건, 특수 법인 등에서 28건으로 2006년 6월 현재 총 23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문화 사업은 복합화를 포함하여 74건이 진행됐다. 이 중 초등 중등학교는 12개, 고등학교는 4개, 대학 등은 26개, 9개의 급식 시설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 일부는 완공되어 현재 사용 중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경험을 연구하여 우리에게 도입 작년, 2005년부터 BTL 사업이 실행되었다.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된 이유는 자명하다.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많은데 국가에는 자금이 없고, 이를 빌릴 곳도 마땅치 않은데, 반대로 민간에는 갈 곳 없는 자금이 넘쳐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의 돈으로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친구가 있어도, 적은 이자에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도 담보도 없이, 무한정 돈을 빌려주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설령 마음씨 좋은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도 이를 돌려주어야 하고, 빌린 돈을 유용하게 쓰기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군다나 우리가 빌린 자금은 교육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에 쓴다고 빌리지만, 정말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뒤를 이어가는 후손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내가 내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려면 많은 개입을 감수하여야 한다. 자금을 투자 받는데 대한 보증도 보장도 필요하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싫어할 이는 아무도 없다. 수많은 BTL 사업을 진행하면 참가할 기업의 입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설이 매력적이고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업은 이윤이 적고, 어떤 사업은 사업장이 많이 나뉘어있고, 어떤 사업은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 등등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해결책도 쉽다. 시행기관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보기만 하면 될 것이다. IMF 이후 계속 추진되어온 개방정책만으로도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뢰받을 수 있는 상대에게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교육시설 BTL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발주되어야 하는지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시설이 단순하게

인구 추이를 파악하여 인구 증감에 따른 판단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답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복합화를 생각하면 더욱 어려운 일이다. 현재 BTL사업을 위한 VFM(Value For Money)만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이전의 가격 평가의 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술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고 피팩, 에듀팩 등의 전문기관에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는 등 민간투자 사업의 의의에 맞는 사업 방향으로 혼란기를 지나 조금씩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사업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지나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행기관의 편의에 의한 발주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예측이 가능하다. 먼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 인구의 이동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변화가 없으면 좋지만 저출산, 노령화가 눈앞에 보이며 도심인구의 공동화, 도시로의 인구 유입, 뉴타운의 건설 등등으로 국가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학교가 함께 부담해야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방안이 준비되어있지 않다. 또한 교육시설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인 교육에 충실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증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 되어야하고, 기본 계획은 학생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자 교육주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와 이를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공청회를 통하

여 만들어져야한다. 현재의 BTL 사업방식으로 진행 하면, 이러한 민의의 수렴이 없이 경제 논리에 따른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해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첫 단계에서 잘 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기 위하여 앞의 단추를 다시 풀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더 들 것이다.

### 3. 민간투자 사업의 방향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과제를 뒤로 미루다가는 더 많은 문제가 따라 올 수가 있다. 지난 일년간의 사업을 뒤돌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우리는 이를 보완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타당성 조사를 통한 현 상황의 파악과 미래의 예측이 필요하고, 둘째, 사용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 그리고 셋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정선의 이윤이 보장된 사업이 공시되어야한다. 넷째, 당연히 사업의 진행을 조언하는 자문기관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의 감시, 감독과 사업자를 평가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감안한, 더 나은 미래의 초석으로서의 교육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다.